

나눔과미래 5주년 기념 자록집

집을 희망으로 만들어 온 5년,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갈 미래



발행인 : 송경용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105-3 정암빌딩 802호 (사)나눔과미래
 Tel. 02.928.9064 Fax. 02.922.5945 E-mail. yesnanum@gmail.com
 homepage.http://www.yesnanum.org
 후원계좌. 140-007-327978 (신한. 나눔과미래)

..... 나눔과미래의 비전

..... 나눔과미래의 미션

..... 나눔과미래의 핵심가치

가난한 이웃의 보금자리 마을 지킴이

우리는 주거복지, 지역복지의 개척자로서 가난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고 살 집을 마련하고 보금자리와 마을을 지켜 나갑니다.

하나, 집 없는 이웃과 무주택 서민의 든든한 벗되기

- 아침을여는집 : 쉼터 운영 등 홈리스 지원활동
- 나눔마을 : 홈리스, 쪽방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 집희망주거복지센터 : 퇴거위기 등 집문제로 고통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둘, 안정된 일자리를 함께 땀 흘려 만들기

- 나눔하우징 : 공익집수리, 인테리어, 사회주택 건설 관리 전문 사회적기업
- 양천지역자활센터 : 일하는 주민이 주인인 희망찬 자활기업
- 함께사는 세상 : 헌옷수거 및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홈리스 일자리 창출

셋,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꿈꾸기

- 사랑찬봉사단 : 자원활동가와 함께 만들고, 어르신들과 나누는 사랑을 담은 반찬
- 아름다운 100인 :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회 나누기 (학교와 기숙사 만들기)

넷, 서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뉴타운주민지원센터 : 개발구역 세입자, 영세가옥주 권리옹호 활동
- 두꺼비하우징 : 서민주거지 마을재생사업의 프런티어

주거, 복지, 마을

- 현장중심 활동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실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 -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모순을 극복하며 창외와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한다.
- 활동가의 일체성 - 일이 확장되고 다양해져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조직의 공동체성은 더욱더 깊어져야 함을 믿고 실천한다.
- 세상으로 열린 활동 - 우리의 미션과 관련된 동네, 지역사회, 우리나라, 세계시민의 고통과 필요를 깨어서 살피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나간다.

되돌아 본 나눔과미래의 시간
사진으로 보는 역사





나눔과미래는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과 이름값을 보면 푸른 청춘입니다. 최근에는 ‘두꺼비하우징’으로 이름을 날리고 마을 만들기, ‘나눔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으로 제법 성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주거문제, 특히 뉴타운 문제나 마을 살리기, 주거복지와 관련된 교육, 상담, 노숙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 그 분들을 위한 쉼터와 주거시설 운영 등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지요. 장수마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마을 살리기 운동의 상징이 된 전 과정에도 처음부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상품이 되어버린 주거문제를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잠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을 같이 느끼고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나눔과미래>는 뛰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과도 정책적 협의와 연대, 공동 사업을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살 먹은 어린 아이는 언제나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수요, 거기에 따른 일은 저만치 앞서가고 필요한 재정과 몸은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직으로서의 <나눔과미래>는 아직은 어설픈 다섯 살 어린 아이지만 그 안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력과 내공이 만만치 않은지라 이런 기대와 역할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눔과미래>는 그런 기대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 지치고 힘이 들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할 길이 있다면 또다시 기꺼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는 가운데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시는 분들, 탁월한 실력과 지혜로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을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나눔과미래>는 부족하나마 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도전 앞에 용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눔과미래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을 그리해주셨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격려해주시고 채찍질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눔과미래 이사장 송경홍

무언유행의 시간, 나누며 미래를 탐색하다

나눔과미래는 여느 비영리단체의 출발과는 조금 다르게 매우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이심전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어느 가을날, 평범해 보이는 세 명의 사내인 오범석, 이주원, 남철관이 시내 선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20대 중반부터 꽤나 오랜 시간 몸담았던 조직을 나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서로 많이 달랐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외환위기 직후부터 열심히 홈리스와 함께 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실업자 비슷한 신세가 되었으니 뭔가 함께 도모할 일이 없을까하는 동기로 만난 첫 날, 딱 결정을 하고야 맙니다.

‘그래 노숙인을 위해 청춘의 가장 좋은 시간을 바쳤는데 끝장을 봐야지. 아직 실체가 분명히 잡히지는 않지만 ‘집’, ‘주거복지’라는 문제를 묻고 늘어져 보자.’ 어쩌보면 참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집’이 그저 내 집 장만이란 화두나 부동산 투자 아니면 주택 공급이란 정책 측면에서 다루어지던 시절에 뜬금없이 그걸 소재로 일을 만들어 보겠다니요. 그들이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은 순전히 홈리스를 만나면서 인생의 제일 끝자리, 절벽 바로 앞에 서있는 사람에게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설 보호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열심히 일하며 저축을 해도 결국 안정된 보금자리가 없으면 사상누각이라는 사실을 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거 없는 도전의식이 남달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픈 욕심도 일조했나봅니다.

결국 그 날의 도원결의 비슷한 일이 있고, 임시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이 매주 한 두 번씩 만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두서없이 이야기 나누며 끈끈한 팀웍을 만들고, 계획서 비슷한 것도 써서 공유하다보니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광화문에서 모이곤 했던 그 시절의 포근한 동지가 되어준 코리아글로브는 아직도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결국 몇 개월의 준비를 거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7년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했던 시절에는 법인 사무실도 없어서 지역자활센터 공간에 책상 두 개를 겨우 놓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이듬해 우리만의 작은 사무실을 얻고 가슴 벅차오르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어쨌든 시작한 일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생소하고 흥미진진해서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 신명나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눔과미래의 뿌리인 ‘아침을여는집’에서부터 일하던 정은영과 이제원, 주거복지센터의 창립멤버인 정훈희국장과 같은 후배들이 묵묵하게 현장에서 헌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리없이 강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그들이 없었다면 나눔과미래는 요란한 빈수레처럼 내실없는 조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최고 수장인 법인 이사장님을 동국대 교수님인 진월스님과 성공회대 교수셨던 송경용신부님이 이어서 역임해 오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나눔과미래 활동가 중에서는 세례와 출가 직전까지의 상황을 모두 경험한 초종파, 범종교인이 여럿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작은 자량 한 가지만 하자면 박봉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힘들어 지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일해 온 덕에 목회자로서의 더 큰 사명을 안고 지방으로 떠난 고성현목사님을 제외하면 1년 이상 일한 상근활동가 중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번 나눔과미래면 영원한 나눔과미래인 셈이네요.

그리고 보니 일곱 색깔 무지개 같이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뭉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나눔과미래의 힘은 바로 무언유행(無言有行),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현장 활동에 기반한 실천적 도전이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복지센터, 장수마을 대안개발사업, 뉴타운 주민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나눔하우징과 두꺼비하우징 등 대부분의 일이 겹치는 도전 속에서 낯선 길을 따라가며 이룬 작은 창조였던 것입니다. 5년의 숨가뻐던 시간을 정리해 보니 앞으로의 5년을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거 양극화와 전세대란이 일상화된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시 더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줄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아니 늘 첫마음으로 돌아가 정진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의 합창

2006년 7월 5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나눔과미래는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나눔과미래는 출범 당시 ‘사람’밖에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법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눔과미래의 유일한 사업은 노숙인쉼터 ‘아침을여는집’ 뿐이었습니다. 법인은 2007년 아침을여는집의 정식 수탁기관이 되어, 현재까지 노숙인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미래는 설립과 동시에 성북구에 살고 계시는 주거약자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나는 주택공사(현 LH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등 주택을 수탁 받아 노숙인들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단신자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신청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성북주거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006년 ‘단신자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운영기관이 되었으며,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성북주거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쪽방 고시원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다시 선정되어 정릉동 4동 30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25가구가 입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입임대주택을 ‘나눔마을’이라고 부릅니다.

2008년 나눔과미래 주거복지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때 도시서민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뉴타운사업이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세입자들은 물론 가옥주들도 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

게 상담과 교육, 주민조직 지원 등을 하기 위해 ‘뉴타운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뉴타운주민지원센터’는 매년 뉴타운 재개발 시민학교와 지역별 주민설명회, 일상 상담, 주민조직 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비영리조직도 영리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나눔과미래도 시대의 흐름인 사회적기업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2010년 주식회사 나눔하우징을 설립하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건축사업(실내 인테리어 분야)에 뛰어 들었습니다. 올해 11월말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나눔과미래는 뉴타운 재개발 등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은평구청과 함께 민관합자 주식회사인 두꺼비하우징을 설립하여 은평구에서 대안개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사단법인 하늘사랑복지회와 나눔과미래가 “보다 넓은 나눔, 보다 깊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하늘사랑복지회 소속 기관이었던 ‘양천자활지원센터’가 나눔과미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양천자활지원센터는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소중한 공익기관입니다. 나눔과미래는 2006년부터 지역의 홀몸노인들을 위해 매주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어린 손맛이 담긴 밑반찬을 25가구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찬’ 봉사는 홀몸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작은 도움이 됩니다.

나눔과미래는 일곱 빛깔 무지개가 조화로운 화음을 내는 무지개 조직입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롭게 빛내는 무지개처럼 나눔과미래는 도시서민들이 조화롭고 화합된 세상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조력자이자 벗이 되는 모임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Red-아침을여는집, Orange-나눔마을, Yellow-집희망주거복지센터, Green-뉴타운주민지원센터, Blue-나눔하우징+두꺼비하우징, Navy-양천자활지원센터, Violet-사랑찬봉사단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심 규 현 (자원활동가)

처음 봉사활동을 한다 하였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회의적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모두 자기 땅 아닌 데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 아니니? 그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줘야 집값도 안정되고, 지방도 발전하고, 살기도 좋아지는 거야.”

그 때 갓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저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봉사활동의 의미를 찾고자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였죠. 해답을 찾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봉사활동은 반찬배달활동이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저희 조가 지도를 들고 직접 집집마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며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곧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고, 길이 얼면 아무도 다니지 못할 것 같은 가파른 비탈길과 계단들을 오르고, 폭이 채 1미터도

되지 않는 미로같이 되어 있는 길들을 찾아다니고, 웅기중기 모여 있는 좁은 집들 사이를 직접 지나다니며 평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면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계셨던 할머니, 채 세 평도 안 되는 방에 웅기중기 모여 있는 다섯 식구, 눈이라도 한번 크게 쌓이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지붕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서 어떠한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기나긴 의문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해 준 건 다름 아닌 한 할머니의 미소였습니다. 몇 번을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손을 꼭 잡으셨던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냥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것저것 정부에서 보조금 좀 주면 되고. 뭘 더 줘야 해?” 그러나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아니 희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도움이죠. 나의 아주 작은 부분만 떼어드리면, 그 작은 부분에 그분들도 행복해지실 수 있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수도, 당장의 가난을 해결해 드릴 수도, 번듯한 새 집을 마련해 드릴 수도 없죠.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욱 소중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생성이죠.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이란 우리에게 이젠 너무나 익숙한 이 문구를 직접 실천해보면서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다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져다줍니다. 연신 고맙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할머니 앞에서, 같이 미소질 수 있는 즐거움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말보다는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부터, 혹은 연인과,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작은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면서 짓는 미소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행복이니까요.

나눔과미래, 참 많이 고맙습니다!



정 진 영 (前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원)

저는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집 문제로 성동구청 주택과에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한다거나,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 없고, 서울시의 도시정비가 문제가 되어 시민단체나 정당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개발은 가옥주, 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다종다양한 주민들의 삶을 뒤 흔들고 지역 공동체의 뿌리를 통째로 뽑는 엄청난 일입니다만, 실제 주민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가옥주들은 건설회사의 광고 이미지와 정비업체가 부풀린 비례율을 보고 도장을 찍어주기 십상입니다. 세입자는 오로지 가옥주의 결정에 의해, 조합설립동의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이나 권한 없이 주거권이 흔들립니다. 정부, 건설회사, 정비업체, 조합이 뚫뚫 뭉쳐 재개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차단한 채, 'OS요원'이라 부르는 홍보도우미를 동원하여 서면동의서에 도장을 받아낼수록,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게 됩니다.

2008년 가을 -뉴타운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커녕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무렵- 저는 왕십리 1구역 조합에서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갓 백일이 지난 것먹이 아기를 안고 육십 대의 아버지를 모시고 '나눔과미래'를 찾아갔습니다.

나눔과미래는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재개발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한편, 정치가들에게 재개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잘못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눔과미래는 은평구청과 힘을 모아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스'를 만들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그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후퇴하지 않는 모습이 반갑습니다.

나눔과미래가 바빠지는 만큼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깨어나고, 주민들이 깨어나는 만큼 개발세력들이 활개 치는 영역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주거권을 훼손당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눔과미래의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참 많이 고맙습니다!"

내가 본 지역풀뿌리 활동분야의 나눔과미래



조 석 진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나눔과미래 5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나눔과미래를 알게 되었던 시기는 2007년 5, 6월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성북청년센터를 통해서 지역활동을 시작하려던 저에게 나눔과미래는 든든한 벗이었고, 지역활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준 선배였습니다. 그 당시 나눔과미래는 될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자! 라는 결심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했었다고 기억됩니다. 언젠가 편안한 자리에서 주고 받던 이야기들이 실제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그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과미래의 사업추진력에 감탄하고, 저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눔과미래는 자신의 사업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지역활동에 도움이 되고, 지역활동가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역사업에 나서서 지역활동을 해왔던 조직으로 기억합니다.

쓴소리를 부탁받았으니, 쓴소리를 하자면, 2007년, 2008년의 나눔과미래와 2011년의 나눔과미래가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2011년 지역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눔과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사회복지법인인가? 사회복지단체인가? 시민운동단체인가? 지역활동단체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눔과미래가 찾았으면 합니다. 제게 나눔과미래는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가들의 단체였고, 특정 분야 부문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단체였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았던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눔과미래가 조금은 무거워지고, 조금은 거대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공동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스스로의 활동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인지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풀뿌리 지역활동에 진정성있게 최선을 다했던 나눔과미래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집, 마을, 일자리, 꽃을 심는 손

1999. 1



2006. 7



2007. 1



2010. 5



2009. 10



2010. 4



2010. 12



2011. 8



노숙인의 든든한 쉼자리가 되어 온 12년

추운 겨울 차디찬 콘크리트 벽에 신문지를 이불 삼아 몸을 누인 노숙인. 하이힐 소리에 잠을 깨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는 노숙인.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두가 노숙인을 보며 인생 포기자, 막장인생이라고 매도해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기도합니다. 아침을여는집은 노숙인들의 가슴 한 켠에 묻혀 있는 '희망'을 함께 찾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사는 이야기

아침을여는집은 IMF로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때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쉼터로 보문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숙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노숙인 상담, 집수리, 반찬나눔 등의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나눔과미래가 하고 있는 사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침을여는집이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바람에 쉼터가 없어질 뻔한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우리들에게 전세금을 두 배로 올려달라는 집주인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보문동을 떠나게 되었지만 지금은 LH공사의 임대주택에서 집주인에게 쫓겨날 염려없이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침을여는집에는 20명의 식구들이 함께 정붙이며 살고 있고, 모두들 일자리를 갖고 저축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 노숙인 생활지원 : 496명
- 주거지원 : 임대주택 입주 10명
 - 임시주거지원 20명
- 신용회복 지원 : 10명
- 가족재결합 : 20가구
- 취업 연계 : 매년 평균 112회
- 저축총액(2011년) : 30,712만원

쉼터의 실무자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었던

활동가

“

당신들의

숨은 땀방울이

노숙인들의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



▲
이주원
오범석
남철관
고성현
정은영
이제원
추형선
최원순
▼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이웃들의 해우소

집희망주거복지센터는 2007년에 설립되어 성북구에서 주거관련 다양한 문제를 가진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상담과 임대주택 정보제공, 임대료지원 및 집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한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5년간 2059명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등의 전화상담부터 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까지 바쁘지만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사는이야기: 추운 겨울 난방연료가 없어서 냉골에서 지내시던 어르신들

전기장판만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름값이 올라 돈이 없는 어르신들은 최소한의 기름도 넣지 못해 보일러가 동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센터가 2008년부터 연료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많은 단체들이 겨울철 연탄지원과 난방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사업 중에는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못해 임대료 연체를 할 수밖에 없어 홈리스가 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일입니다. 상담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인이 부담 가능한 금액과 센터 지원금을 통하여 월세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거나, 체납 임대료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센터의 지원을 통해 연체금을 해결한 어느 어머니가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다고 웃으시며 앞으로는 밀리는 일이 없을거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주거복지센터 사업에서 매년 상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욕구입니다. 도무지 알쏭달쏭하기만 한 내용을 확실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상담 요청이 많다는 것은 전월세 대란으로 표현되듯이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를 해소해 줄 마땅한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들이 지역마다 생긴다면 많은 서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김장나누기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 주거복지상담 6,093건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161가구
- 연체 위기가구 긴급 임대료 지원 152가구
- 공익 집수리 지원 120가구
- 동절기 연탄, 기름 연료지원 58가구
- 주거약자를 찾아가는 현장상담 14회 180명
- 성북구 장수마을 대안개발사업(2008-현재)
 - 성북구 생태적맵핑(2008년)
- 붕괴위기 스카이라파트 세입자 지원 등
- 서민주거권 지킴이 활동 수행



공공임대주택설명회



집수리활동



연료지원 - 연탄나눔

나눔마을은 노숙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한 보증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정작 주거공간이 필요한 노숙인들에게는 굳게 닫혀있던 임대주택이 처음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으로 그 문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입주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넓어져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으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마을은 노숙인들에게 단순히 살기 위한 ‘집’이 아닌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사람사는이야기: 긴 터널의 끝에서 나를 살려준 쉼터

어둡고 무서운 긴 터널을 나오니 터널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서 식사를 해결할까?’ ‘무료급식소’ 하는 생각 밖에는 없었습니다.

좌절과 긴 한숨의 노숙생활은 2009년 6월 나눔과미래의 이지원팀장님을 만난 인연으로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막혀있는 터널 문을 스스로는 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문만 열어주시면 터널 밖을 힘차게 걸어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하여 쉼터로 전입되었을 때 저는 새로 태어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의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나눔마을에도 입주하여 보람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축을 월 33만원씩 한 것을 월 50만원씩 저축하여 적은 봉급이지만 부지런히 모아 나의 작은 집을 마련하여 헤어졌던 아내와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 주거취약계층임대주택 ‘나눔마을’ 입주민 : 80가구
- 전체 입주민 월평균저축액 : 389만원
- 입주민 총저축액 : 5억 1,900만원
- 입주민들의 목표들 :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저축증액,
창업준비를 위한 저축,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저축 등



나눔마을 입주 보증금 지원 전달식



나눔마을 입주심사 모습



삼선동 나눔마을주택 전경



입주자와 실무자 자녀와 함께 한 저녁시간



자원봉사자에서 김장김치 전달하던 날



나눔마을 가족들과 제주 성산일출봉에서

나눔은 만큼 풍성해지는 사랑찬 삶

〈사랑찬-사랑이 가득한 반찬〉은 2000년대 초반 아침을여는집 식구들의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아침 식구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고 같은 동네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반찬을 전해드리는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침을여는집이 정신재활센터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센터로 변화하면서 식구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사랑찬〉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께 전해드립니다.

사랑사는이야기

사랑찬을 전해드리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는 보문동 언덕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둘 언덕에 자리잡고 그렇게 마을이 만들어지고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모두 알 정도로 친밀했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동네가 보문29구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자,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학인 어르신에게 조합에서 편지가 날아들고, 내용도 알 수 없는 편지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최소 30년 많게는 50년 이상 살아오셨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로 이사하셨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이제 다정했던 이 분들을 뵈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던 미소할머니, 어두운 방에서 티비를 보시다가도 우리만 오면 좋아하시던 준엽할머니, 호탕한 웃음이 인상적인 복수할머니, 갈 때마다 요구르트나 사탕을 늘 챙겨주시던 정애할머니...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 금순할머니, 영식할아버지, 순희할머니, 임순할머니... 이제는 만날 수 없지만, 모두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 연평균 1,040 여개의 사랑 가득한 반찬 나눔
- 매해 600여명의 자원활동가 참여
- 연 1회 쌀과 김장김치 나눔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하우징은 공익집수리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덜어 드립니다. 함께 땀 흘리는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의 공익집수리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분야에서의 시공능력 전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사회주택 신축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사는이야기: 화마 속에 사그러진 희망을 다시 찾다.

매우 추웠던 어느 겨울날, 경릉의 무허가주택에서 전세 500만원에 살던 박순배선생이 하루는 친구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전기세가 연체되어, 초를 켜고 자다가 화재 발생으로 목조주택이 순식간에 전소되었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친구는 사망하고, 박선생님은 줄지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본인 과실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자원활동가와 후원기업의 도움으로 같은 위치에 새로운 간이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선생님의 활짝 웃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눔하우징은 이웃의 보금자리를 지켜드립니다.



화재로 전소된 집



자원활동가와 함께 짓는 집



공사후의 모습

걸어온 길

1999년 노숙인쉼터 '아침을여는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문동 달동네의 무허가주택에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 도배, 장판 공사를 해드리는 소중한 자원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평지집수리센터'가 생기면서 소박한 자원활동이 전담 기술인력을 통한 공익집수리사업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던 센터는 2010년 1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면서 전문가 채용,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통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기업 (주)나눔하우징으로 진화합니다. 2011년 현재, LH/SH공사와 공공기관 발주공사, 아름다운가게 등 비영리기관 내장공사, 카페와 스튜디오 등 특수인테리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과 공사끝낸 자원활동가와 할머니



아름다운가게 / 카페 룸 / 스튜디오 시공



나눔하우징의 보물로 현장식구들 / 수많은 정성의 손길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집수리사업 1,474건 (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일반인테리어공사 57건
- 신규 고용창출 총29명
- 임대주택 입주민지원사업 : 연체금 개선 지원 프로그램 46가구 진행

두꺼비아 두꺼비아 헌집 줄게~ 새 집다오~

과거 우리나라에는 마을이 3만 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뉴타운을 거치며 도시만 남고 마을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은 마을만들기와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뉴타운 재개발로 쫓겨나가는 주민의 정주권을 지키고, 서민주거지를 재생시키고 도심내 마을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가난한 동네의 꿈을 이뤄주고픈 두꺼비하우징

시범단지 안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대로 건너 아파트촌 아이들과 가난한 산동네 아이들이 같이 다닙니다. 학교 안에서 문제, 낙인이 찍혀 있던 마을이 시범단지로 지정되고 나서 부모님들은 바라십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마을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아이들의 처진 어깨도 올라갔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두꺼비하우징과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주거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이 생겨나고, 도시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 2011. 3. 24 은평구청, 명지대학교, 에너지재단, (주)두꺼비하우징 주택 에너지 기술협력 협약 체결
 - 장애인집수리, 사랑의 집고쳐주기, 희망집수리 등 공익형 집수리 171가구
 - 공공부문 리모델링 공사 6건, 지역 및 기타공사 8건
- 2011. 4. (재)함께 일하는 재단 주관 2011 녹색성장분야예비사회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
 - 2011. 11.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택도시설계연구실과 사회적기업 결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희망찬 자활기업”

일자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더욱이 고용없는 성장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더 좁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업을 경영하기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낮아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많은 희망일자리가 만들어 기를 소망합니다.

양천지역자활센터는 생산 협동 나눔의 이념과 정신으로 근로빈곤층의 자립복지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이야기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집에 잠시 머물다 보증금 백만원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세 식구가 들어서면 꼭 차는 공간, 그곳에서 아이들과 간신히 이를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허드렛일이라도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도 없었고, 더구나 어린 딸 때문에 늦은 밤까지 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에서 양천지역자활센터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득하고 아찔한 순간입니다.

한 달간 청소에 관한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으니 급여도 높아지고 자녀교육에도 지장이 없게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가 가산점이 되어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 식구의 단란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져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자활근로사업

- 1) 복지간병사업단 : 2010년 파견처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 외 5곳, 149명 파견
- 2) 주거복지사업단 : 유료공사 30건, 에너지재단공사, 서울형집수리사업 등 보호시장사업134건, 무료공사 20건
- 3) 크린스쿨청소사업단 :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참여인원 14명
- 4)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 양천구 관내 총 8개교 파견
- 5) 씽씽자전거사업단 : 2010년 자전거 134건 판매, 수리 912건
- 6) 한지공예사업 : 보건복지부 선물상자 주문제작, 전영일공방 대형등 배적작업

자활공동체

- 1) (주)애니크린에스 :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18개교 참여인원 25명
- 2)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 현재 총14명 교육청장애활동보조원 취업
- 3)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 이용자 약 350명, 요양보호사 75명



복지간병사업단



씽씽자전거사업



인큐베이터사업단



장애통합교육보조원 파견사업



크린스쿨 청소사업



주거복지사업



한지공예사업단



(사)사람과사람



주민자활학교

꽃을 심는 손 - 인도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Slum Dog Millionaire)’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인도의 빈민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 아이들은 실제로 빈민가의 아이들이었고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달릿(Dalit) 계층의 아이들이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2억 5천만 명이 넘는 그들이 여전히 ‘불가촉천민’(Dalit 또는 Untouchable)으로 불리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닭, 돼지, 들판의 검은 소들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험에 처해있고 차별받는 ‘불가촉천민’ 출신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지역에 있는 100여 명의 아이들, 그나마 부모도 잃고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고아들을 위해 작은 기숙학교를 지으려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 중 40여 명은 스무 평 남짓한 허름한 고아원에서 먹고 자고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말이 고아원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물입니다. 책상도 없고 침대도 모자라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없습니다. 맨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하고 그나마 최소한의 양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서너 살 때부터 농사일을 해야 하고 물을 길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딸감으로 쓸 나무를 주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죽은 소를 치우고 사람의 시신을 치우는 일도 해야 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팔 다리를 잘리거나 눈을 빼앗기거나 장기를 적출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호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학교’를 지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아원도 작아서 40명밖에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6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숙학교’는 시급합니다.

과거의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린 시절의 적절한 보호와 교육만이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구촌 가족들이 모아준 소중한 정성의 손길을 경험했던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아름다운 100인이 되어 함께 정성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교육이 미래를 만듭니다.



하이데라바드의 달릿계층 어린이들과 함께



미얀마의 뽕뽕레 공부방

함께 하는 손길을 기다립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나왔던 어린 아이들을 기억해주시시오.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고 잠 잘 수 있는 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도에 이어 필리핀, 파키스탄, 아프리카에도 학교와 병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학교, 병원을 지을 때 자녀들과 함께 봉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봉사, 물품지원 등에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미래의 다섯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눔과미래가
빨리 있어지는
날의 소기를 바랍니다
하루 5주년에 응원합니다

그 동안 참 많은 일을
만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빛도시연구소 서경호



나눔과미래의
5주년을 축하합니다
박광룡



나눔과 미래 5주년 축하드립니다.
물론가 가깝지 않은 곳에 찾아가 가능한 이웃의 삶을
어려운 지는 나눔을 해설한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5주년을 기념,
북미사상 가대 해설을 위한 시선이나 아울러
비판 대장 중독으로 가라하 수 있습니다. 하를 바라는 전합니다.
홍익재단 이득현

가정자 이재이 정영강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가정자 이재이 정영강
시립대 강에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단
정영강



나눔을 통한 미래에는
희망의 큰 숲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디자인홀리스지원센터 소장 김의곤



나눔과 미래?
처음엔 나눔을 참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소속을 접할 때마다, "아 ~" 하고 감탄사가
전로 나는 사립을 보면서 나눔에 잘 맞는 언어라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잘 맞는, 각 현장의 일들은 어렵
그중에 잘 해내시는지...
부담감도 하나 자랑스럽게도 합니다.
계속 잘 ~ 잘 "하이팅!!" 하세요.
영원영영엔터 서경호



나눔과 미래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북도시관리공관
이수경 이종순



나눔과 미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경화

사) 나눔과 미래의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눔으로 미래의 희망은
만들어 오실 노력에 감사
장사의 마음은 전하여.....

2011. 11. 22
행복한 우리집 이범성



Fissler in Fantasy

Fissler

